



시라져가는 손 투망 지키기 40년 광주 북동 이호철 씨

“만선 꿈꾸는 어부 마음으로 한땀 한땀 정성을 염습니다”

광주시 북구 북동 이호철(60)씨의 작업장. ‘투망’이란 간판이 걸려있지만 폐가처럼 허름하기만 하다. 대나무로 만든 바늘대와 짓대, 굽기 별로 준비된 나일론 실, 벽에 둘러진 갖가지 투망이 한눈에 들어올 만큼 크기도 작다. 심지어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다. “촛불로 줄을 끊고, 도구만 있으면 그물을 짤 수 있으니까”

그는 19살 때부터 시작해 여태껏 40년이 넘게 손으로 투망을 짜고 있다. 벽에 고리를 걸고, 나일론 실을 바늘대에 감아 위에서부터 밑으로 ‘코’를 잡으며 끄개질을 하듯 밑으로 내려간다.



왼쪽부터 절을 짤 때 사용하는 짓대. 투망을 짤 때 쓰는 바늘대와 실을 자르는 쪽가위.

그물 구멍 크기는 내려갈수록 작아진다. 잡은 물고기가 도망가기 때문이다. 길이가 길어질수록 실의 굽기도 달라진다. 멀리 던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물고기 잡는 투망만 아니라 새그들도 있고, 예전에는 노루, 청동오리 망도 만들었어요. 지금도 주문만 들어오면 맷돼지 잡는 망도 만들어 네 살 자신이 있습니다. 투망 기술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요.”

어린 시절, 그는 옛방에 살던 엄마로부터 투망을 처음 접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만들어 투망에 재미를 느꼈고, 업으로 삼게 됐다. 한 때는 “앉은 자리에서도 원하는 곳으로 투망질을 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며 대구, 부산, 서울까지 납품을 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투망에 거는 날도 직접 만드는 ‘정성’ 때문이었다.

“투망 종류는 물고기만 많아요. ‘합(실의 두께)’과 ‘질(구멍 크기)’, ‘발(길이)’의 조합에 따라 수많은 투망이 제작됩니다. 중요한 건 코를 떠내는 기술입니다. 투망을 던질 때 힘이나 주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를 어디에,

몇 개 데느냐가 투망질을 할 때 펼쳐지는 정도를 좌우합니다. 기계 투망이나 중국산엔 이게 적고요.”

그가 투망 하나를 만드는데 20일, 길게는 한 달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정성껏 만들어도 값싼 중국산에 치여 팔지 못한 투망이 쌓여만 갔다. 수지가 맞지 않았다. 투망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원룸 종합 관리사’로 일 하지 5년째. 그는 “아이들이 크고 돈이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선택한 일”이라 말했다.

그러나 작업장만큼은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4명의 동생을 대학까지 보내준 자신의 ‘업’을 쉽게 버릴 수 없거니와, 이제 중학생인 아들에게 “어여도 아버지가 하는 일이 어떤 일 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예전부터 내려온 기술인데… 그런 생각 하면 안타깝죠. ‘명맥을 자킨다’는 표현이 과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다가도 투망을 잡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생각이 정리돼요. 저는 앞으로도 투망 걸을 떠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글·사진=박정렬기자 halo@

안철환 예술의거리 번영회장, 광주공예협 이사장 취임

안철환(54) 예술의거리 번영회장이 최근 (사)광주공예협동조합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4년.

광주시무형문화재 4호 진나리 봇 이수자인 안 이사장은 지난달 열린 ‘광주공예협동조합 6차 정기총회’에서 선출됐다.

그는 ▲문화전당 내 관광객 대상 공예품 전시·판매장 입점 ▲생활·취미 공예단체들과 교류 ▲조합원 문화재, 명장 등록 추진 사업 등을 약속했다. 안 이사장은 “전통을 지키고 새로운 기술을 창



조하는데 흔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공예협동조합은 지난 1984년 법인인가를 받아 광주·전남공예협동조합으로 설립됐다가 지난 2007년 분리됐다. 매년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광주 시대회’ ‘대한민국관광기념품 공모전 광주시대회’를 열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

전남도, 목포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전남도는 12일 오전 목포시 옥암동 일원서 전남 경찰청, 목포시, 교통안전공단호남지역본부 등 교통 관련 유관기관과 협동으로 ‘교통질서가 아름다운 전남’을 구호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사진〉

전남도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9년 497명이던 사망자가 2010년 457명, 2011년 416명으로 줄다 지난해 457명으로 전년보다 9.8% 늘었다.

교통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통한 도민들의 교통 안전의식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교통 유관기관과 대대적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전남도는 또 올해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도로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교통사고 끊은 곳 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등 243개소에 6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장필수기자 bunge@kwangju.co.kr

“주민과 소통 징검다리 될게요”

‘사업통’ 김희진 북구 자치행정국장

광주시 북구 집행부와 의회, 자생단체 간 교역할을 하며 주민 화합과 구성발전을 이끈 이가 있다.

주민공은 올해로 공직생활 35년째인 북구 김희진(59) 자치행정국장, 내년 정년을 앞둔 그이지만, 업무만족은 매사에 완벽을 기하는 성격에 결코 게을리하는 법이 없다.

이 때문인지 직원들 사이에서 ‘빈틈없는 상사’로 통한다. 특히 구청에서 진행 중인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대단하다. 내년 12월 말 완공 예정인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북구 국민체력증진센터 견립사업이 대표적인 경우다.

애초엔 체육시설만 건립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부족해 난항을 겪자, 문화·복지관이 포함된 복합센터로 사업 변경을 추진했다. 부족한 예산을 확보

하기가 더 수월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관·광부 담당 직원 등을 찾아가 통사정을 했고 결국 변경요청은 받아들여졌다. 그뿐이 아니라 그가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추진한 사업만 도 여러 개다.

북구장학회 설립을 포함한 동네 한바퀴 주부순찰단·남도향토음식박물관 개관 등이다. 이중 그가 이뤄낸 최고의 사업은 자치단체장의 인재육성 프로젝트인 북구장학회 설립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성적우수자 등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5·18 재단 오재일 이사장 ‘훈장’

5·18 기념재단 오재일 이사장이 12일 오전 11시 서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열린 정부 훈포장식에서 훙장근정훈장을 받았다.

오 이사장은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의천 교수 국제지역학회장

전의천 조선대 경영대학원장(무역학과 교수)이 최근 고려대에서 열린 국제지역학회 이사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임됐다. 국제지역학회는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종합적·학제적 연구를 통한 지역학 발전과 인류 평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1996년 설립됐다. 국제통상·어학·정치 분야의 회원 1700여명이 중국·일본 등 1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채희종기자 chae@

증자감)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 = 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모집

▲축구회원 = 축구를 통해서 친목 도모하고 활기찬 여가운동을 하고자 하는 20~50대 축구회원을 모집. 매주 토요일 오후 운암동 인조구장 010-9604-1681(신찬수).

▲이화여대 도우미 = 친환경고급자재 시공(편백나무 교실, 강당, 요리실습실, 사계절 수영장) 5~7세 유아 수시

조선대 총학생회 연합 출범식



조선대 26대 총학생회(회장 김국민)가 지난 11일 오후 3시 1·8극장에서 연합 출범식을 가졌다. 김국민 총학생회장과 서재홍 총장 등 참석 인사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동신대 김필식 총장 프로축구 입단 학생 격려



2013 K-리그 신인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아 프로팀에 입단한 광주 FC 한효진·전남도드래곤즈 박경민·고양 HiFC 김상균(사진 왼쪽부터) 등 동신대 축구부 출신 졸업생 3명이 지난 11일 대학을 방문해 김필식 총장의 축하를 받았다.

전남대 치전원, 교외 장학금 전달식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강병철)은 최근 임상교육관 광강홀에서 2013학년도 1학기 동창회 및 발전기금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교통봉사대’ 순천만정원박람회 홍보대사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최근 서울교통회관에서 ‘전국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각 지역 지대장 및 임원 50명에게 박람회 홍보위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순천시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정선호(전남도 환경산업진흥원 개원준비단장·前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임현숙(전남 유통군)·한화에너지(전남)·유종술(전남 여수 성산초등학교 교사)·최행담씨(장녀 유리양(전남 여수시청 근무)=16일(토) 낮 12시 이어워너컨벤션센터(서구 치평동) 3층 메리풀홀출

▲문복순씨(장남 이지민(삼성전자)·군 나친수(전남도 의사회장·순천나부인과원장)·강정선씨(장녀 성진양=16일(토) 오후 2시 아름다운컨벤션 1층 티파니홀).

▲서생현(조선대 평생교육원 교강사회 수석부회장)·최경화씨(장남 준오군 박승군·조연자씨(장녀 영신양=16일(토) 오후 40분 수아비스웨딩컨벤션 2층 크리스탈홀).

▲이충노·최영순씨(장남 중진군 정진백(행동하는 양심 광주·전남협의회장)·양인모씨(팔 유선양=16일(토) 오후 1시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동창동문회

▲북성중 제13회 동창회 월례회(회장 김성국)=13일(수) 오후 6시 30분 진도회관 062-234-7892.

▲북성중 제15회 동창회(회장 정본진) 월례회=15일(금) 오후 6시30분 롯데백화점 9층 천안문062-221-1901.

▲북성중 제16회 동창회(회장 최원)

종친회

▲진주강씨 광주전남 종회(회장 강원구) 정기총회=16일(토) 오후 10시 30분 광주향교 유림회관 대강당 062-228-3368.

▲전주리씨 대동종양원 광주·전남 지역 여성 이화회 3월 월례회(회장 이보희)=22일(금) 오후 11시 062-225-5636, 5631.

▲전주리씨 대동종양원 광주·전남 지역 여성 이화회 3월 월례회(회장 이보희)=22일(금) 오후 11시 062-225-5636, 5631.

일임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기출 및 위기청소년보호시설 = 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복부비만, 피부관리 센터 무료 체험 = 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 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엘 우산밸리리. 062-261-5875, 011-9614-3348.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 = 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주민등록

증자감

증자감)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광주 여성의 전화